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시책’을 내놓은 강원도 평창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덕분에 코로나19는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단위에서 산발적인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평창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개별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성 : 강원도 평창군



## 01 단 1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도 인센티브 지원

평창군은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 및 학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기존 25명 이상 유치해야 가능했던 지원신청을 최고 1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모든 여행사 및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평창군 여행사 및 학교 상품운영 인센티브 사업은 타 시·군의 경우 단체인원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와 비교할 때 방역과 관광이라는 두 목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 02 생태백신테마 평창시티투어 에코힐링로드 운영

시티투어는 버스를 타고 시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평창군은 현재 올림피로드, 진부장로드, 봉평장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평창군은 단체관광 코스를 개별관광 코스로 전환하여 에코힐링로드로 운영하고 있다.

에코힐링로드는 관광객의 자연치유를 테마로 평창바위공원, 평화길, 평창돌문화체험관, 청옥산 육백마지기 등 자연자원을 주요 코스로 구성하였다. 특히 청옥산 육백마지기는 SNS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이번 에코힐링로드에 사진촬영 명소인 청옥산 육백마지기가 포함되어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평창시티투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맞춰 최대 탑승 인원을 제한한다.

## 03 반려견 동반객을 위한 ‘멍~포레스트 in 평창’관광택시상품 출시

평창군은 KTX강릉선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한 관광교통서비스 중 평창관광택시 고도화 사업의 일환인 ‘멍~포레스트 in 평창’관광 상품을 8월에 출시하였다. 멍~포레스트 in 평창은 ‘우리 댕댕이도 힐링을!’이라는 상품 소개에 드러나듯 소그룹 단위의 여행자에게 적합한 관광택시의 장점과 평창의 자연자원 매력을 연계한 기획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모객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멍~포레스트 in 평창은 평창바위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기’, 평창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해 웨프가 코스요리를 선사하는 ‘다이닝 아웃(Dining Out)’, ‘버스킹’문화공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개별관광객 유치가 관건

평창군은 이미 국내·외 여행 트렌드로 뚜렷하게 나타난 자유여행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창군은 강원도와 함께 클린강원 패스포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유여행자들을 위해 강원도 평창을 안전한 여행지로 가꾸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관광 마케팅 분야 관광시책에서 개별관광객 유치를 집중해 평창 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